조계사 불교대학 30년, 문화축전 연다

9월 28일 조계사 대웅전서 3부 행사로 개최

학번별 금강경 합송대회
30년 사진전 · 서원대회도
"역량 한데 모아 발전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불교대학이 창립 30년을 맞아 새 30년을 기획하는 문화대축전을 연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성해 장경태)는 9월 28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사 불교대학 30년, 미래 30년'을 주제로 문화대축전을 개최한다.

조계사 불교대학은 1989년 설립 이후 3000여 졸업생을 배출해 온 불교계 대표 불교대학이다.

문화대축전은 총 3부로, 1부 문화마당, 2부 기념법회, 3부 어울림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1부 문화마당에서는 불교대학 30년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전시회를 비롯해 포토존, 페이스페인팅, 서원지 쓰기 등 참여부스와 공연 '연꽃이 피어오르다' 공양미 자비의탑 쌓기 행사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조계사 불교대학 학번별 금강경 합송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2부 기념법회서는 불교대학 30년 및 총동문회 발자취 영상 상영과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의 법문, 금강경 합송 경연대회 시상식 및 장학금 수여식 등이 진행된다.

3부 어울림한마당에서는 불교대학 총동문회 찬불가 동아리의 공연과 마술사 신우주씨의 마술쇼, 사물놀이 한마당과 초청공연 등이 펼쳐진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불교대학 30주년을 맞아 나선 것은 그동안 배출된 동문들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 때문이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기획부, 교육부, 문화부, 포교부, 신행부, 봉사부, 재무부, 홍보부 등 총 8개 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불교대학 졸업 기수별로 부서장이 배정돼있다. 고문 10명을 포함해 전체 임원 수가 100여 명에 달한다.

보통 다른 사찰의 경우 불교대학 출신 동문들이 따로 뭉치기가 쉽지 않다. 동문조직이 활성화돼있지 않아 신도회 차원서 불교대학 출신들을 관리한다. 하지만 조계사 불교대학의 경우 불교대학 건물 내 사무실을 두고 회원 관리 등을 직접 하고 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그동안 조계사 어린이집 건립불사 동참, 선재 어린이집 어린이놀이기구 불사 동참을 비롯해 다양한 미래 불자를 위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들이 만든 장학회의 별칭은 사천왕상 장학회로 초기 장학기금 1000만원에 1000명의 동문이 월 1000원을 모연해 1000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하는 것이다.

또 매월 넷째주 금요일 53선지식 구법여행을 비롯해 매월 한차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봉사와 매월 둘째주 금요일 교육법회, 조계사 만발식당 봉사 등 사회기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53선지식 구법여행의 경우 2015년 11월 입재한 이후 매월 셋째주 금요일마다 출재가를 막론한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신해행증의 새로운 기치를 높였다. 혜거, 지안, 혜국 스님 등 스님들뿐만 아니라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 우승택 교수, 가수 장미화 등 각계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강좌로도 진행됐다.

장경태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가 출범한지 13년이 됐고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불교대학 졸업생과 불교대학원 졸업생 등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든 것은 사실상 없었다"며 "불교대학 30년을 맞아 총동문대회를 문화축전 형태로 열고 향후 동문들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불교대학 발전과 조계사 발전을 함께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전국 포교사 '불교 중흥' 발원

포교사단 제17회 팔재계법회 8월 24일 개최


포교사 팔재계 수계대법회서 포교사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며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방창덕)은 8월 24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제17회 팔재계 수계대법회를 개최했다. 3500여 포교사들이 참여한 이번 대법회서는 일반 포교사와 전문 포교사 등 565명이 포교사로 품수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길"이라며 "포교사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정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품수식에 앞서서는 총무원장과 포교원장상, 총재상 등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수계에 이어 묵언 탑돌이와 '금강경' 독송 등 철야 정진이 이어졌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방창덕 포교사단장 등 전국에서 모인 3200여 포교사가 동참해 한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했다.

방창덕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종단으로부터 부여받은 포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 · 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이마를 맞대고 부처님 정법을 전하는 일을 신바람 나게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팔재계법회 입재식에서는 조계종 디지털대학교에서 포교사단에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포교사단 방창덕 단장은 법회 활동비 등으로 호국연무사에 포교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지구촌공생회, 인천에 16번째 지부 개설

인천지부장에 일지 스님

교계 최초 국제구호 NGO인 지구촌공생회가 인천에 16번째 지부를 개설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8월 19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불교회관에서 지구촌공생회 16번째 지부 · 지회 개설을 알리는 명판식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6월경 인천불교회관을 인천지부로 지정하고,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을 지부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날 명판식에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국제구호 활동에서 지부 지회의 동참이 중요하다. 특히 불자들의 자비실천을 알리는데 지부의 역할이 크다"며 "지구촌 곳곳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지부장으로 임명된 일지 스님은 "활동 방안 논의를 통해 향후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사찰음식 숨은 고수는 바로 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3회 한국사찰음식 경연대회

재야의 사찰음식 고수는 누구일까? 사찰음식의 실력을 가리는 재야 고수들의 대결이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8월 23일 서울 안국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제3회 한국사찰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예선을 거친 총 12개 2인 1조 팀이 참가, 각자 준비한 주제에 맞는 사찰음식을 선보였다. 당초 대회는 학인스님부와 일반부로 나눠 기획됐지만 학인스님들이 승가대학 교육일정으로 인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 일반부만 개최됐다. 일반부에는 고등학생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사찰음식 실력을 뽐냈다.

심사위원 정관 스님과 조희숙 셰프의 심사에 따라 대상인 총무원장상에는 '마중물인연'팀이 선정됐다. 소원해진 친구사이를 사찰음식으로 풀고자 참여한 '마중물인연' 팀은 애호박과 가지, 유부와 밥, 된장소스와 유자즙을 활용한 '유자 된장 품은 채소말이'를 선보였다. 아울러 옥수수와 보리, 가지, 호박으로 화를 누그러뜨리는 '옥수수 따러 가 보리전'과 감자와 살구로 조화를 이룬 후식으로 호평을 받았다.


심사위원 정관 스님이 경연대회 참가자들의 조리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최우수상인 서울시장상에는 조계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22년차 부부'팀이 '낭군 입맷상 차림'이라는 주제로 메밀국수말이와 곤약튀김 등을 선보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같은 최우수상인 한식진흥원 이사장상에는 포두부 나물국수와 두부전 한쌈을 요리한 '갓밝이'팀과 고추잡채 두부포말이 · 콩고기 꿔바로우를 만든 '신사임당'팀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사업단장상과 특별상 등의 시상이 이뤄졌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사찰음식은 무슨 음식을 먹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음식을 대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며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사찰음식의 철학이 널리 알려져 모두의 심신건강 증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9서울노인영화제 9월 25일 개막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서… 국내 31편 본선 진출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청년세대와의 교감을 취지로 마련된 서울노인영화제가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2019서울노인영화제는 오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영화제에는 단편공모에 국내부문 총 232편(청년감독 159편, 노인감독 73편)이 출품돼 역대 최다 출품을 기록했으며, 이 중 31편이 본선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신설된 해외부문에 15개국 61편이 출품, 27편이 영화제에서 상영된다.

2019서울노인영화제는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아 숫자 '100'이 갖는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해 '100白BACK, #100'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영화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의 모습을 담은 영화, 노년의 과거 경험을 되돌아보는 영화를 상영해 노년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白이 갖는 사전적 의미 중 '진솔하다'는 뜻을 살려 각 세대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소셜미디어의 해시태그(#)처럼 모두와 소통한다는 취지를 살린다는 목표다.

특히 한국영화 100주년 특별기획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성영화인 안종화 감독의 '청춘의 십자로(1934)', 한국영화 발전의 기폭제가 된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1973)' 등 한국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작품등을 상영한다.

이외에도 올해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중년배우 이병준, 시니어모델 김칠두, 신예배우 신지이 씨가 8월 26일 위촉됐다.

서울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 희유 스님은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는 어르신들이 살아온 시대의 반영이자, 지난 100년간 향유해온 문화이기도 하다"며 "노인과 청년이 각각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